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윤지희 데레사, 최고은 소피아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 주 미사 독서: 미정(캠프)	교무금 : \$100
금주 미사 복사: 조성익 토마스모어	봉헌금 : \$280
금주 미사해설: 윤보연 소화데레사	합계 : \$380
다음주 미사해설: 김태진 하상바오로(금), 윤보연 소화데레사(일)	봉헌봉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윤지희 데레사
회 계: 김정기 토마스 아퀴나스, 심윤희 베르나르도	다음주 봉헌봉사:
친교실 정리: 대학원 구역	미정(캠프)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간식 모임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사제관 (6월 29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다음 기도모임 9월 첫주 금요일(장소 계시관 참고)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45분 성당친교실 (7월 7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8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7월 6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김춘수 시인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대상을 인식하고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것은 무(無)와 다름없습니다.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 대상은 비로소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세례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즈카르야는 주님의 천사가 일러 준 대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하느님에게서 주어졌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하느님께 특별히 선택되어 소명을 받습니다. 그의 소명은 자신의 이름의 뜻 그대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여 ‘주님의 자애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의 탄생은 수천 년 동안 약속되었던 하느님의 자비가 이 세상에 실현되었다는 징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리가 하느님과 만남의 인연을 맺은 것도 수천 년 전부터 이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끊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살핌과 안배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느님 없이는 이해와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주임 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거주사제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바오로
(608) 628-7977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년 6월 23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49,1-6

<제 2 독서> 사도행전 13,22 ~ 26

회답송

◎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 주님, 당신은 저를 살피시고 잘 아시나이다. 앓으나 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 알아차리시나이다.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헤아리시니, 당신은 저의 길 모두 아시나이다. ◎
○ 당신은 제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어미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나이다. 오묘하게 지어 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 작품들은 놀랍기만 하옵니다. ◎
○ 제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땅속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뼈대 속속들이 당신은 아시나이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 되어, 주님께 앞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7-66.80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에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크신 자비 베푸시니,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오늘의 성가] 시작: 199 봉헌: 219 성체: 197 파견: 200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서울주보의 ‘말씀의 이삭’은 신자들이 가장 열독하는 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의 반응을 금방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말씀의 이삭’에 문화예술인들의 글을 실는다고 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글을 읽은 우리 신자들은 그분들이 나누어 주는 신앙체험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 김태희 베르다 자매의 글이 실리면서 그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일반 일간지에도 글의 내용이 소개가 될 정도였습니다. 베르다 자매는 주보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때로는 남들보다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는 우월감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위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혼자서만 조용히 하느님 사랑을 맛보고 즐겨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잊고 살았다는 것과 내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죄책감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너무나도 겸손(?)하여,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른 이에게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일에는 조금 무뎝니다. 나는 우리 시대 최고의 배우가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겠다고 외치는 것이 그저 눈물 나도록 고맙고 대견합니다. 그녀의 외침은 큰 메아리가 되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나는 그녀가 각박한 이 세상에 사랑과 희망, 위로를 주는 진정한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즈카르야는 천사의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습니다. 요한 세례자는 하느님께 특별한 소명을 받습니다. 그는 구세주 주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세례자는 평생 주님의 구원도구로써 충실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암흑기에 그의 외침은 항상 힘 있고 분명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결국 그는 정의를 외치다 왕에게 미움을 사서 죽게 됩니다. 요한 세례자는 명예를 탐하거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느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나 명예를 누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 요한 세례자처럼 용기를 가질 수 있으리라 희망해봅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우리의 믿음을 외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 공지사항

1. 계속해서 여름 캠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사 후 오리엔테이션이 있겠습니다.
- 일시 : 6월 29일~7월 1일 (2박 3일)
- 장소 : Pine Lake Camp
- 비용 : 성인 \$45/1박, 청소년 \$30/1박
2. 첫 영성체 예식을 축하합니다. 간식과 성물을 준비해 주신 부모님들과 주일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 첫 영성체 대상자: 손제규 마티아, 여경인 마리아, 류지담 리카르도, 류지율 안드레아
* 주일학교 교사: 고미현 다미아나, 한승호 임마누엘, 최고은 소피아, 윤여진 엘리사벳, 박주원 율리엠타, 임지영 에반젤린, 최유진 아녜스
3. 다음 주 미사는 St. Paul 대신 Pine Lake Camp 에서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장명희 헬레나 / 인천 은행동 본당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노래가 울려 퍼지며 성전 문을 통해 하나원 교육생들이 하나, 둘 입장하였다. 다소 경직된 모습, 낯선 시선……. 그러나 그런 모습은 그들만이 아니라 1박 2일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생판 모르는 탈북자를 집에 들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교육 중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이라는 수녀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순간 내 눈은 나의 예수님을 향해 있었고 ‘누추한 집이나 따스하오니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라는 성가가 떠올랐다. 작고 어린 예수님. 그러나 맑은 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 어서 오세요’ 환영식이 끝나고 교육생들과 봉사자들은 성당에서 마련해준 점심을 먹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향하는 우리는 마치 예전에도 만났던 사람처럼 어느새 손을 맞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교육생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 나섰다. 버스를 탈 때 요금은 카드로 낸다는 것과 내릴 때도 꼭! 카드를 찍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 주었다. 우리는 재래시장과 지하상가를 오르내리며, 필요한 물품도 사고 추억의 ‘풀빵’도 사 먹었다. 그러던 중 교육생이 연신 내게 “속아서 살았던 세월이 너무 분통합니다.” 하였다. 나와 함께 했던 교육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생이 그러했다. 남한은 아직도 못 먹고 못살고, 거지가 많다는 교육을 어릴 적부터 귀에 박지가 있을 정도로 들어서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한다. 교육생들은 정말 남한에 가면 우리는 죽을까? 라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와서 보니 그동안 그것들이 모두 거짓임에 분통해했다. 연신 눈물을 흘리며 아직도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곳엔 그 흔한 전기도 없어 해가 지면 촛불 켜고 저녁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든다고 한다. 그 외에도 그곳에 살 때의 어려웠던 애기와 남하할 때의 목숨을 걸고 탈출한 애기 등을 들려줄 때, 얼마나 보고 싶을까? 나도 가족들이 잠시 집을 비우기만 해도 보고 싶고 걱정이 드는데 이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리모컨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편리한 세상에 사는 우리.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선 모습으로 여겨졌다. 가슴이 시리다. 그동안 통일에 대해 우심했던 자신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일상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함과 하루빨리 통일되어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